

우리나라 및 동양 고전(古典)의 내용 분석을 통한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 탐색

차 우 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요약》

이 연구는 서구 일변도의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 및 방법을 극복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게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 우리나라 및 동양의 다양한 고전(古典) - (1) 유가 전서인 「소학(小學)」, 「명심보감(明心寶鑑)」, 「동몽선습(童蒙先習)」, 「논어(論語)」, 「맹자(孟子)」, 「순자(荀子)」와, (2) 도가 전서인 「도덕경(道德經)」 -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추출된 전통적인 교수·학습의 원리를 도덕과 교육 내용과 관련지어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일부의 우리나라 및 동양의 고전(古典) 자체만의 분석으로는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구체적인 흐름 및 절차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웠으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지도 원리 하에 학생 지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고전 속에서도 현대 교육학 이론에서 강조되는 도덕과 교수·학습의 지도 원리가 상당한 정도 발견되었으며, 오늘날의 산업 사회에서 뿐 아니라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서의 도덕교육을 위한 접근에도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제어 : 도덕과 교수·학습 원리, 무위(無爲), 예(禮)에 의한 교화, 감정과 욕망의 절제, 기본생활습관, 효의 실천, 단계의 발달, 통합적 접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현장을 방문해보면 지금까지도 교육학자들에 의해 소개된 수많은 교수·학습 방법이 무색할 정도로 교실 수업 방법이 매우 단순하고 획일

화되어 있다¹⁾. 서구 선진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교육 사조나 방법들이 국내에 보급되는 속도는 그 어느 나라도 추종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 대부분이 하나의 유행으로 지나칠 뿐 제대로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려 교실 수업의 질(質)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서구 선진국, 특히 미국 교육 이론의 실험장이라고 자조적인 비난을 하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서양의 교육 사조와 교육 방법에 맹목적으로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및 동양 사회의 전통 속에서 의미 있게 활용된 다양한 교수·학습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에 적합한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건강을 위한 식생활에 있어서 ‘신토불이’가 필요하듯이,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발전을 위해서도 신토불이가 요청된다고 보여진다.

도덕과 교육은 이제 독립 교과로 설정된 지 약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크고 작은 공과(功過)를 이룩하였지만, 지금까지는 타 교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도덕 교육을 우리나라에 보급하는 데 급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서구의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 및 방법 이론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작업과 더불어 우리의 오랜 토양 속에서 발전되어 온 교수·학습의 원리 및 방법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및 동양의 다양한 고전(古典) 중 - 유가전서인 「소학(小學)」, 「명심보감(明心寶鑑)」, 「동몽선습(童蒙先習)」, 「논어(論語)」, 「맹자(孟子)」, 「순자(荀子)」와, 도가 전서인 「도덕경(道德經)」 - 속에 나타나는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들을 찾아내고,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로 일반화하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과 제한점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질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및 동양의 고전(古典) - 유가전서인 「소학(小學)」, 「명심보감(明心寶鑑)」, 「동몽선습(童蒙先習)」, 「논어(論語)」, 「맹자(孟子)」, 「순자(荀子)」와, 도가 전서인 「도덕경(道德經)」 - 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과 교육의 원리 및 방법 관련 아이디어를 추출한다. 우리가 의식하던 그렇지 못하던 「도덕경(道德經)」에 나타난 사상이 우리의 의식 심저(心底)를 움직이

1) 본 연구자가 2001년도 서울시내 20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평가를 실시하면서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수업이 교사 중심의 강의식이다. 교단선진화 작업에 의해 일부 수업에서는 ICT활용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그것 또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는 제약이 많았다. 왜냐하면 ICT활용 수업이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을 보완하고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학습을 유도하기보다는 구색 맞추기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고 있고, 우리의 도덕(철학), 종교, 예술, 정치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다. 공자의 윤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상이 우리 생활에서 양(陽)적인 외면 세계에 영향을 주었다면, 노자의 형이상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사상은 우리 생활에서 음(陰)적인 내면 세계를 움직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의 유가 고전들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지만, 『도덕경』에 대한 탐색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추출된 전통적인 교수-학습의 원리를 도덕과 교육 내용과 관련지어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본다.

그러나 일부의 우리나라 및 동양의 고전(古典) 자체만의 분석으로는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구체적인 흐름 및 절차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웠으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지도 원리 하에 학생 지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연구는 2차 자료에 주로 의존하여 아이디어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상의 문제가 따를 수도 있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및 동양의 고전(古典) 중 유가전서인 「소학(小學)」, 「명심보감(明心寶鑑)」, 「동몽선습(童蒙先習)」, 「논어(論語)」, 「맹자(孟子)」, 「순자(荀子)」와, 도가 전서인 「도덕경(道德經)」 등을 중심으로 문헌을 분석하여 도덕 교육적 내용에 대한 교수-학습의 원리를 탐색하였다. 전통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 관련 문구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였으며, 그 인용 문구의 심층적 의미를 분석하여 현대에도 효과적인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 및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둘째,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분야와 동양 고전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전통적인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를 검토하였다.

Ⅱ. 「소학」, 「동몽선습」 속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

우리나라 및 동양 고전 중 먼저, 『소학』과 『동몽선습』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소학(小學)』 속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

『소학』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상냥하고 공손한 태도 등 기본 생활 습관을 중시하라.

『소학(小學)』에 의하면, 예의는 개인적인 몸가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이것을 바르게 한 뒤에야 인간의 윤리 질서가 바로 잡히고 따라서 사회 생활의 규범이 확립된다고 한다. 즉, “예의는 얼굴과 몸이 바르고(正容體) 낮빛이 온화하여(顏色齊) 말소리가 순한(辭令順) 뒤에야 예의가 갖추어진다.”고 한다. 또한 “얼굴빛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경건하게 되는 것이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옥과 띠를 반드시 정제하여야 한다.”(『小學·明威義之則』; 이기석 역해, 1981, 111쪽)고 한다.

제7차 바른생활과 교육과정이나 도덕과 교육과정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생활을 통해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런 점에서 현행 바른생활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소학(小學)』에서의 ‘기본 생활 습관을 중시하라’라는 강조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나. 본성(本性)을 따르도록 하라.

“하늘이 사람에게 명령한 것을 성, 성에 따르는 것을 도,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즉, 성(性)은 지극히 선한 것으로서 모든 사물에 대응하는 도리가 갖추어져 있다. 성에 좇아서 행한다면 곧 인간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질을 각각 달리 하여서 총명한 자는 성에 좇아서 인간의 길을 가겠지만, 어리석은 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성인(聖人)이 나와서 인간이 반드시 행해야 할 도리를 밝히 놓았으니, 이것이 가르침이다.²⁾라고 하여 도덕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小學·立教』; 이기석 역해, 1981, 13쪽).

이는 ‘휴먼 모델링(human modeling)’을 강조하고 있는 현행 바른생활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주요 교수·학습 방법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속이지 않는 것을 보여 주라.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의 교육이 그 사람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린이에게 속이지 않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幼子·常視

2) 이 글에서 성(性)은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내용의 범위는 성선설(性善說)에 기초하고 있다.

無誰 立正方 不顧聽(『小學·立教』; 이기석 역해, 1981. 19쪽). “맹자가 어릴 적에 이웃집에서 돼지를 잡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에게 무엇에 쓰려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는 장난삼아 너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장난삼아 한 말을 뉘우치고 곧 그 돼지를 잡은 집을 찾아가 고기를 사다가 맹자를 먹였다.”고 한다(이기석 역해, 20쪽).

이는 교사나 부모가 언행일치(言行一致)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작은 약속이라도 학생이나 자녀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 도덕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교사와 부모 등 웃어른의 신뢰성 있는 행동이 아동의 도덕성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반듀라(Bandura, 1977)도 학습에 있어서 관찰과 모델링(modelin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라. 바른 음악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시켜라.

“시(詩)라는 것은 뜻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노래라는 것은 가락을 붙여서 길게 말하는 것이며, 소리라는 것은 말을 길게 하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고, 율(律)이라는 것은 소리가 협화(協和)한 것이다. 팔음(八音)³⁴⁾이 잘 조화되어 서로 조화를 잃는 일이 없으면 신(神)과 사람이 모두 화순(和順)하게 될 것이다.”(『小學·立教』; 이기석 역해, 1981. 22, 23쪽).

이 말은, 바른 음악이 정서(情緒)를 순화하며 인격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논어(論語)』에도 나오는 말이다. 즉, 도덕교육에 있어서의 언어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시와 음악 등을 통한 정서교육(情誼教育)을 도덕교육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순자(荀子)도 다양하고 풍부한 감정의 개발과 그것의 조절을 위한 정서교육, 특히 도덕성 함양을 위한 음악교육을 강조한다(박재주, 2000, 318쪽).

이는 『소학(小學)』에서의 ‘바른 음악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시켜라.’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제7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와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 자료에서 시와 음악을 도덕교육의 한 방법으로 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어진 행동을 가르친 후 학문을 가르쳐라.

인간성 있는 사람이 학문을 하여야만 그 학문이 바른 학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 만일 인간성이 없는 사람이 지식을 쌓는다면 도리어 세상에 해독을 끼친다.

3) 덕이란,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어떤 가치 규범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져, 그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비교적 고정화된 내적 힘으로 성향화될 형성되는 것이다.

4) 팔음(八音)이란, 여덟 가지 소리, 즉 쇠, 돌, 줄, 대, 박, 흙, 가죽, 나무 등에서 나오는 소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자(孔子)는 “착한 행실을 하고 나서 남는 힘이 있으면 글을 배우라.(而敎：行有餘力則以學文)”라는 것이다(『小學·立敎』; 이기석 역해, 1981. 26쪽).

요즘 학생들은 3R's를 비롯한 국, 영, 수 등 도구 과목을 배우느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시절의 대부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도덕적(moral)이기를 바라기보다는 뛰어난(excellent) 아동을 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차우규, 1997). 이런 상황에서 “어진 행동을 가르친 후 학문을 가르쳐라”라는 공자의 말은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바. 가정과의 연계적인 노력을 중시하라.

“...여형공은 안으로 그 부모의 엄격한 가르침을 받고, 밖으로 초천지 선생의 독실한 교화와 지도를 받았으며, 자신 또한 배운 바를 독실히 실천하여서 마침내 덕행이 높은 큰 인물이 되었다.” 즉, 부모, 스승, 학생 본인 삼자(三者)의 성의가 합치는 곳에 한 사람의 인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안에 현명한 부형이 없고, 밖에 엄격한 스승과 벗이 없이 능히 성취하는 자는 드물다(人生 內無賢父兄 外無嚴師友 而能有成者少矣).” 이 말은 부모, 스승, 본인 삼자의 성의가 합치되는 곳에 한 사람의 인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小學·漸行』; 이기석 역해, 1981. 241).

도덕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부모와의 유기적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 교수-학습의 방법의 하나로 연계 모형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새물결 운동을 전개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전개하고 있다.

사. 예(禮)가 아닌 것은 관심 두지 마라.

공자는 사욕(私慾)을 극복하여서 바른 도리(道理)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예(禮)가 아닌 것은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小學·敬身』; 이기석 역해, 1981. 106쪽).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禮)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극기(克己)가 필요하다. 그러나 요즘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1자녀 가정이 많아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을 참도록 하기보다는 아무 제한 없이 표출하고 충족하도록 권장하여 여러 생활면에서 예에 어긋나는 경우를 쉽게 목격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도덕교육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극기복례(克己復禮)’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운영해야 할 것이다.

아. 자신의 잘못을 꾸짖고 남의 잘못을 관용하라.

범충선공이 말하기를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어도 남을 꾸짖는 것은 밝고, 비록 충

명이 있어도 자기를 용서할 때는 어둡다. 너희들은 다만 항상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성현의 지위에 이르지 못할 것을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즉,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 잘못을 꾸짖는 데 밝고 남의 잘못을 관용하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小學·嘉言』; 이기석 역해, 1981. 247).

자신의 잘못을 꾸짖고 남의 잘못에 관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되새기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마음에 새겨봅시다’라는 활동을 매 제재마다 수행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편, 1999).

2. 『동몽선습(童蒙先習)』 속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

가. 모든 행실의 근본인 효(孝)를 실천하라.

“오륜(五倫)은 하늘이 마련한 법칙이요, 사람의 도리로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행실은 이 다섯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오직 효도가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된다. …밤에는 잠자리를 정해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하며, 밖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고하고, 밖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뵈는다. …부모가 계시면 그 공경함을 극진히 하고, 봉양할 때는 그 즐거움을 극진히 하며, 병드시면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슬픔을 다하며, 제사에는 엄숙함을 다한다.”(『童蒙先習·總論』; 이기석 역해, 1982. 56, 57쪽).

이 글에 의하면, 사람의 행실은 오륜(五倫)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효도(孝道)가 모든 행실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즉,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른을 공경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화목하며, 벗 사이에 믿음이 있고, 임금에게 충성할 수 있다고 한다.

제7차 바른생활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도 효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로효친(敬老孝親) 사상이 점차 약해지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려면 이러한 효(孝) 교육이 가장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효의 실천 방법도 과거의 낡은 관습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참 의미를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나. 몸가짐을 바르고 단정히 하도록 지도하라.

“…무릇 남의 자제된 지는 반드시 목소리를 나직이 하고 숨을 가라 앉혀서 말을 상세하고 느리게 할 것이요, 큰 소리로 떠들거나 허튼 소리로 시시덕거려서는 안 된다. 부모나 웃 어른이 가르치고 타이르는 말씀이 있으면 다만 머리를 숙여서 받아들일 뿐, 함부로 의논(議論)해서는 안 된다. 혹 어른의 말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시비(是非)를 가리지 말고,

시간이 좀 경과되어 어른의 마음이 좀 풀리기를 기다려 조용조용히 말씀드려서 어른의 기분을 손상하거나 뜻을 거슬리지 않고 해명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한다면 어른의 마음을 손상하거나 거슬리지 않고 사리(事理)가 스스로 분명해질 것이다...”(『童蒙先習·童蒙修知』 ; 이기석 역해, 1982, 192-196쪽).

이는 『소학(小學)』의 ‘상냥하고 공손한 태도 등 기본 생활 습관을 중시하라.’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님께 허물이 있다고 하여 무례하고 성급하게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부모님의 상황을 살펴가며 예의를 다해 충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최근 1자녀 가정이 증가됨에 따라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 예의를 지킬 줄 모르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에서 부모를 포함한 웃어른께 대하는 바른 태도를 역할체험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다. 행하여야 할 행동 지침에 따라 실천하도록 하라.

“무릇 자제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 한다. 떠돌고 싸우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고, 무익(無益)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 사람이 앉을 때에는 반드시 몸을 여미어서 넓은 자리를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 ...”(『童蒙先習·童蒙修知』 ; 이기석 역해, 1982, 203-209쪽)

이렇듯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따라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바른생활과 및 도덕과 교과용도서에서 매 제재마다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도덕적 행위 실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으로 ‘행위 실습 모형’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

Ⅲ. 「논어」, 「맹자」, 「순자」 속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

1. 『논어(論語)』 속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

가. 배움(學)과 생각(思)을 통합적으로 지도하라.

공자(孔子)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견식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학문이 확고하지 못하다(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論語·爲政』 ; 박재주, 2000, 90쪽)라고 말

한다. 즉, 오로지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오로지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실천위주의 인성 교육을 강조하기도 하였고(교육부, 1997),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적 판단력 신장에만 중점을 두었던 의무 윤리 혹은 규칙 윤리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덕 교육적 접근이 다시 각광을 받았다.

나. 단계적으로 꾸준히 도덕성을 키워가도록 하라.

공자는 “나는 열 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었고, 서른에 스스로 서게 되었으며, 마흔에 모든 시리에 의혹이 없었고, 쉰에는 천명을 알았으며, 예순에는 천명에 따라 실천할 수 있게 되었고, 일흔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좇아도 법규를 넘지 않았다(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論語·爲政』; 박재주, 2000, 90-92쪽) 라고 말한다. 이것은 도덕 수양이 장기성(長期性)과 단계성(段階性)을 가지고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 것이며, 눈앞의 이해관계나 물질생활의 만족에만 뜻을 두어서는 안 되며, 장래의 고차원적인 정신생활에 뜻을 두고, 뜻을 가지기를 한결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의 도덕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각 개인 혹은 집단이 시기별로 어떤 변화 추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적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초,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덕과 교육성취도 검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 욕망을 극복하도록 하라.

공자는 “군자(君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小人)은 남에게서 구한다(君子 求諸己 小人 求諸人).”(『論語·衛靈公』; 박재주, 2000, 93쪽) 라고 하는데, 자기에게서 구한다는 것은 자신을 돌이켜 언제나 자기의 언행이 예의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한다는 뜻이다. 즉, 항상 자기를 감독하여 객관적 도(道)에 따르는 내재적 자각(自覺)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7차 바른생활과 및 도덕과 교과서에서는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을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자기 평가표’를 만들어 여러 내용 영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간다.

공자는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 ...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이 곧 허물이다(過則勿憚改 過而不改 是謂過矣).”라고 말한다(『論語·學而』, 『論語·衛靈公』; 박재주,

2000, 94쪽). 공자는 잘못을 고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덕 수양의 과정을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과정이라고 한다. 즉, 사람들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도덕 규범에 어긋나는 실수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지적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소학』의 ‘자신의 잘못을 꾸짖고 남의 잘못을 관용하라.’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자기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좀더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의 허물을 깨닫고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잘한 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도 중요하지만,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 주고 스스로 깨달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학생을 이해하고 그들의 재능에 맞게 가르쳐라.

공자는 제자들의 개별적 실제 상황에 기반하여 그들의 재능에 맞게 지도(因材施教)해야 함을 강조하였다(『論語·述而』; 박재주, 2000, 94-97쪽). 즉, 공자는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제자들의 구체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맥락(脈絡) 속에서 그들의 성격과 재능(才能)을 계발(啓發)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그는 성격과 재능에 맞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심리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학생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관찰(觀察)하여 언행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에 대해 관련이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자신의 의견과 비교해 보기도 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학습자의 수준별(水準別) 지도 혹은 개인차(個人差)를 고려한 교수-학습의 원리를 제대로 실천한 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바. 잠재능력을 계발(啓發)하도록 유도하라.

공자는 “배우는 사람이 발분하지 않으면 그를 열어주지 않고, 말로 표현하기를 애쓰지 않으면 말해 주지 않으며, 한 모퉁이를 가르쳐 주어 세 모퉁이로 돌아와 증명하지 못하면 다시 가르쳐 주지 않는다(一以貫格 一拂一發 舉一隅 不以三隅反則不復).”라고 하여 학생들에게 지식(知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도덕적 수양에 힘쓰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그에 있어서 도덕교육의 과정은 도덕적 지식을 이해하고 도덕관념을 형성하는 ‘자기 주도적 탐색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論語·述而』; 박재주, 2000, 97쪽).

사. 학생들에게 술선수범 하라.

공자는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고, 그 몸이 바르지 아니하면 비록 명령해도 좇지 않는다(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論語·子路』; 박재주, 2000, 100쪽)라고 말한다. 교사는 학생의 표상이기 때문에 한 마디의 말과 한 번의 조그마한 행동도 모두 학생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공자는 ‘말을 통한 가르침(有言之教)’과 ‘몸으로의 가르침(無言之教)’을 함께 시행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소학(小學)』의 ‘성인(聖人)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라.’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맹자(孟子)』 속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

가. 선한 본성을 잘 지키고 키우도록 하라.

맹자는 “학문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풀어놓은 마음을 찾을 따름이다(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已矣).”라고 하였다(『孟子·告子上』; 박재주, 2000, 180쪽). 그리하여 맹자(孟子)는 마음(선한 본성)을 잃지 않고 보존하여 확충하는 것이 도덕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存心養性). 이는 우리가 선한 본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마음을 보존함은 풀어놓은 마음을 찾음(求放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 본성에 관한 성선설의 입장에서 도덕교육의 방법을 논한 것이며, 이는 후에 나올 순자의 성악설과 대비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의지를 단련시켜라.

맹자는 “우환에 살고 안락에 죽는다(生於憂患 而死於安樂也).”라고 말한다(『孟子·告子下』; 박재주, 2000, 185쪽). 그가 선형적(先驗的) 도덕의식을 강조하지만, 이는 반드시 ‘실천적 단련(鍛鍊)’을 통해 발전되고 확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맹자는 역사적으로 전해지는 요순, 관중 등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면서 성장하고 선발되었다고 소개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천적 단련에 도움이 되도록 각종 봉사활동과 체험학습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 끈기 있게 정진하도록 하라.

맹자는 도덕교육은, 지식교육의 경우와 달리, 충명함보다는 꾸준한 노력과 전심전력(全心全力)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본다. 즉, 그는 ‘한가지 마음으로 전력하여 뜻을 이룰 것’(專心致志)을 강조한다. 그래서 “산골의 작은 길은 잠깐 동안만이라도 다니면 길이 생기고, 잠시라도 다니지 않으면 곧 잡초가 자라 길이 없어진다.”(『孟子·盡心下』; 박재주, 2000, 186, 187쪽)라고 하여 행위에는 반드시 향상된 마음과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하였다.

이는 공자가 『논어(論語)』에서 공자가 ‘도덕 수양이 장기성(長期性)을 가지고 평생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 것’과 유사하다.

라. 도덕성은 단계적으로 발달해 간다는 것을 명심하라.

맹자는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흐르지 못하니, 군자는 도에 뜻이 있더라도 문장을 이루지 못하면 통달하지 못한다.”(『孟子·盡心下』; 박재주, 2000, 188쪽)라고 하여 도덕발달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단계를 뛰어 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는 공자가 『논어(論語)』에서 ‘도덕 수양이 단계성(段階性)을 가지고 평생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함을 밝힌 것’과 유사하다.

마. 학생들에게 도덕적 모범이 되라.

유교(儒敎)에서의 도덕수양은 성현의 언행에 따라 본을 닦고 덕(德)을 이루는데 있기 때문에, 스승의 자질은 학문과 덕망을 겸비하여 제자뿐만 아니라 주변을 감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그 밝은 것으로 사람을 밝게 해야 하며, 그 어두운 것으로 사람을 밝게 하려고 해서 는 안 된다.”(『孟子·盡心下』; 박재주, 2000, 192쪽)고 하여, 남을 가르쳐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밝히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소학(小學)』의 ‘성인(聖人)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라.’ 및 『논어(論語)』의 ‘학생들에게 솔선수범 하라.’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Freud, 1965)와 같은 정신분석학자도 이 점을 강조하여 “부모, 교사, 기타 중요한 권위적 존재들은 사회적 권위의 대면자가 되어 옳고 그른 것을 꾸준히 강조하고 실천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자아와 바람직한 초자아가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택휘·유병열, 2001, 248쪽)고 강조한다.

3. 『순자(荀子)』 속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

가. 꾸준한 노력과 정성을 다하도록 하라.

순자(荀子)에 의하면, “성(性)은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쌓을 수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될 수는 있으나 억지로 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荀子·勸學』; 박재주, 2000, 305쪽)라고 하여 사람은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다만 이것은 노력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뿐이며, 최종적인 성취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하겠다는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논어(論語)』에서 ‘도덕 수양이 장기성(長期性)과 단계성(段階性)을 가지고 평생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함을 밝힌 것’ 및 『맹자(孟子)』에서 말하는 ‘끈기 있게 정진하도록 하라.’와 유사하다.

나.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라.

순자에 의하면, “군자는 반드시 마을을 가려서 거주하고, ... 사악하고 치우친 것을 막고 알맞고 올바른 것을 가까이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즉, 그는 ‘좋은 환경과 습속은 인간의 품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다(『荀子·勸學』; 박재주, 2000에서 재인용).

다. 예(禮)에 의해 교화하라.

순자는 예(禮)에 의한 교화(敎化)를 중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쇠는 솥물에 갈아야 날카로워지는 것이니, 군자가 널리 배우고 날마다 세 번씩 자기 몸을 살핀다면 슬기는 밝아지고 행실에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荀子·勸學』; 박재주, 2000, 307쪽). 특히 그는 통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바르고 깨끗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위는 아래의 근본이니, 위가 선명하면 다스려져 분별이 있고, 위가 곧고 성실하면 아래가 정성스럽고 충실하며, 위가 공정하면 아래가 솔직하기 쉽다.”(『荀子·正論』; 박재주, 2000, 307쪽)고 하였다.

이는 『논어』의 ‘三省과 『소학』에 나타난 ‘예가 아닌 것은 무시하라.’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 『바른생활』과에서 기본생활습관 및 기본 예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진다.

라. 배우는 것과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을 통해 완성하라.

순자는 “듣지 않는 것은 듣는 것만 못하고, 듣는 것은 보는 것만 못하며, 보는 것은 아는 것만 못하고, 아는 것은 행하는 것보다 못하니, 배움은 행에 이르러서 멈춘다. 즉, 그에게 있어서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은 배움(學) - 사고(思) - 행위(行)의 통합 과정이다.”라고 하여(『荀子·儒效』; 박재주, 2000, 308, 309쪽), ‘나면서부터 아는 것’(生而知)을 인정하지 않고, ‘배워서 아는 것’(學而知)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배우고 안다는 것은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는 바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인지, 정의, 행동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도덕과 교수-학습모형으로 봉사학습모형, 배려모형, 행위실습 모형 등이 새로이 제시되기도 하였다(교육부, 1999).

마. 도덕적 행동이 부단히 쌓이도록 지도하라.

순자는 사람의 도덕성은 부단히 쌓여서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본다. 즉, 배우고 익히는 것은 쌓임의 과정이기 때문에, 늘 그러한 마음(恒心)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배움을 조각에 비유한다. “새기다가 중단하면 썩은 나무도 조각하지 못하며, 새기고 새기면서 중단하지 않으면 돌이나 쇠도 조각될 것이다.”(『荀子·勸學』; 박재주, 2000, 313쪽)

이는 『논어(論語)』에서 도덕성이 누적적이고 단계적으로 발달해 간다는 말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IV. 『도덕경』 속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

동양 고전 중 도교 사상의 기본서인 『도덕경(道德經)』에 나타난 도덕교육 교수-학습의 원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함이 없는 함(無爲之爲)을 실천하도록 하라.

『도덕경(道德經)』에서는 성인(聖人)을 무위(無爲)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본다. 함이 없는 지경에 이르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고 말한다⁵⁾. 부위란 가만히 앉아서 무위 도식하거나 빈둥거린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무위란 보통 인간사에서 발견되는 인위적 행위, 과장된 행위,

5) “...不可爲也，爲者敗之，執者失之...”，“...以至於無爲，無爲而無不爲...”

계산된 행위, 쓸데없는 행위, 남을 의식하고 남 보라고 하는 행위, 자기 중심적 행위, 부산하게 설치하는 행위, 억지로 하는 행위, 남의 일에 간섭하는 행위, 함부로 하는 행위 등 일체의 부자연스런 행위⁶⁾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발적이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구태여 행동으로 느껴지지 않는 행동이 바로 ‘함이 없는 함(無爲之爲)’이다(老子 원전·오강남 풀이, 1995).

나. 이원론적 세계관을 벗어 던지고 양극(兩極)의 조화를 추구하도록 하라.

내 손의 손가락이 길다고 할 때, 그 길다고 하는 것이 내 손가락 자체에 본질적으로 들어 있는 성질로 보는 것이 보통의 상식적 관찰이다. 이런 식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본질적 사고(essentialist view)’라 할 수 있다. 반면 내 손가락이 길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서로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 손가락이 길 수도 있고 동시에 짧을 수도 있다는 것, 길고 짧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비본질적 사고(nonessentialist view)’이다. 이 입장에서 보면 반대나 모순처럼 보이는 개념들이 서로 다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빙글빙글 돌아 고정된 성질로 파악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이 원론적 세계관을 벗고 양쪽을 동시에 생각하는 양극의 조화를 터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老子 원전·오강남 풀이, 1995).

다. 주객(主客)을 분리하려는 분별 지(分別)를 버리도록 하라.

주객 분리의 분별지는 결국 욕심을 낳고, 나아가 자꾸만 함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덤비게 만든다. 따라서 도의 길은 이런 분별적 지식을 버리는 과정이다(爲道日損). 즉, 노자는 일상적 지식을 절대적이지 아니라는 것,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경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지식을 넘어서는 참된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일상적 지식이 주는 편견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깨닫는 것이라고 주장한다(老子 원전·오강남 풀이, 1995).

라. 욕심을 비워 실상(實相) 계를 직관하도록 하라.

도(道)는 텅 빈 그릇과 같이 비어서 만물이 그리 들어가도 차고 넘치는 일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도를 얻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실상(實相)의 세계인 무(無)의 세계로 들어가야

6) 부자연스러운 행동의 역효과에 대해 노자(老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밖 끝으로 서는 사람은 단단히 설 수 없고, 다리를 너무 벌리는 사람은 걸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사람은 밝게 빛날 수 없고, 스스로 외롭다 하는 사람은 돈보일 수 없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7) 知其雄, 守其雌(남성다움을 알면서 여성다움을 유지하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무(無)는 전혀 아무 것도 없는 헛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보통으로 존재하는 유(有)의 세계가 아니라는 뜻에서의 무(無)이다. 만일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실상계의 신비를 직관하게 되지만, 욕심을 가지고 사는 한 눈 앞에 나타나는 현상계만을 감지하고 살뿐이라고 강조한다(老子 원전·오강남 풀이, 1995).

마.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不言之教)을 실천하도록 하라.

성인(聖人)은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不言之教)”을 가르친다고 한다. 궁극적 실재는 체험의 영역이지, 사변적으로 따지거나 논리적으로 캐내려는 지적인 노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인 노력은 오히려 궁극 실재에 대한 체험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VI. 결론

이 연구는 서구 중심의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 및 방법을 극복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게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 및 방법으로 찾아내기 위해, 우리나라 및 동양의 다양한 고전(古典) - 유가 전서인 소학(小學), 명심보감(明心寶鑑), 동몽선습(童蒙先習), 논어(論語), 맹자(孟子), 순자(荀子)와, 도가 전서인 도덕경(道德經) -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매우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 및 관련 아이디어들을 풍부히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및 동양 고전 속에 나타난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 및 관련 아이디어들을 책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학(小學)』에서는, (1) 상냥하고 공손한 태도 등 기본 생활 습관의 중시 (2)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 (3) 속이지 않는 것을 보여줄 것 (4) 바른 음악을 통한 정서 순화 (5) 어진 행동을 가르친 후 학문을 가르칠 것 (6) 삼자(부모, 스승, 학생)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 강조 (7) 예가 아닌 것은 무시할 것 (8) 자신의 잘못을 꾸짖되 남의 잘못에는 관용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둘째, 『동몽선습(童蒙先習)』에서는, (1) 모든 행실의 근본인 효를 실천할 것 (2) 몸가짐을 바르고 단정히 할 것 (3) 바른 행동 지침에 따라 실천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셋째, 『논어(論語)』에서는, (1) 배움과 생각을 통합적으로 지도할 것 (2) 단계적으로 꾸준히 도덕성을 키울 것 (3) 자신의 마음을 살펴 욕망을 극복할 것 (4)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갈 것 (5) 학생을 이해하고 그들의 재능에 맞게 지도할 것 (6) 잠재능력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것 (6) 학생들에게 솔선수범 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넷째, 『맹자(孟子)』에서는, 선한 본성을 잘 지키고 키우도록 할 것 (2) 의지를 단련시킬 것 (3) 끈기 있게 정진하도록 할 것 (4) 단계적인 발달을 염두에 두고 지도할 것 (5) 학생들에게 도덕적 모범이 될 것 등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순자(荀子)』에서는, (1) 꾸준한 노력과 정성을 다하도록 할 것 (2)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 것 (3) 예(禮)에 의해 교화할 것 (4) 배우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 완성할 것 (5) 도덕적인 행동이 부단히 쌓이도록 할 것 (6) 무절제한 감정과 방만한 욕망을 절제하도록 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도덕경(道德經)』에서는, (1) 함이 없는 함(無爲之爲)의 실천 (2) 이원론적 세계관을 버리고 양극(兩極)의 조화 추구 (3) 주객(主客)을 분리하는 분별 지(分別知)를 버릴 것 (4) 욕심을 비워 실상(實相) 계를 직관할 것 (5)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不言之教)을 실천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일부 우리나라 및 동양의 고전(古典) 분석을 통해 도덕과 교수·학습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방법적인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흐름 및 절차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웠으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지도 원리 하에 학생 지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자료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및 과정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小學」

「童蒙先習」

「論語」

「孟子」

「荀子」

「道德經」

권오정 역해(1976). 「新譯 禮記」, 서울: 홍익신서.

교육부(1998).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해설(Ⅲ)」.

김정곤 외(1995). 「한국 전통 사상의 특성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노자 원전·오강남 역(1995), 「도덕경」, 현암사.

민족문화추진회 국역(1998). 「조선왕조실록」. 서울시스템(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박재주(2000). 「동양의 도덕교육사상」. 청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1978), 「충효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은숙(1998). 「공맹사상에 나타난 덕성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계학(1985). 「단군신화의 교육학적 고찰」. 황성모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심설당.

이기석 역해(1982). 「童蒙先習」. 을유문화사.

이기석 역해(1981). 「小學」. 을유문화사.

이돈희(1991). “문화전통과 교육문화”. 「문화전통과 사회발전」. 미원문화재단.

이택휘·유병열(2001). 「도덕교육론」, 서울: 양서원.

정재결·이해영(1993). 「전통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차석기(1986). 「교육사 교육철학」. 집문당.

차유규(1997). 「초·중학교 학생들의 도덕의식 및 도덕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준식 역(1990). 「중국 유불도 삼교의 만남」. 민족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편(2000). 「도덕 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편(2000). 「도덕 교사용지도서 3-1」.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편(1998). 「도덕·윤리과 교과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 논문접수 : 2003년 4월 15일 / 수정본 접수 : 2003년 6월 30일 / 게재 승인 : 2003년 5월 30일

ABSTRACT

An Investigation into the instruction-learning principles in moral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Korean and the Oriental 'Great Books'

Woo-Kyu Cha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orean and the Oriental 'The Great Books' in order to overcome the weakness of the Western-centered teaching-learning in moral education and to find out the significantly and generally useful principles and methods in the teaching- learning of moral education in our coun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Sohak(小學)' emphasizes (1) The importance of basic manners, (2) To follows the Great Sage's instruction, (3) To be honest, (4) To purify emotion through good music, (5) To let children start to learn after acquiring good behaviors, (6) To cooperate with parents, teacher, and students, and (7) To exhort oneself and be gracious to others' mistakes.

'Dongmongsunseup(童蒙先習)' implies to (1) Practice the filial piety that is a basis of every behaviors, (2) Be smart and be good, (3) Act according to good behavior code.

'Non-uh(論語)' by Confucius emphasizes to (1) Teach learning and thinking together, (2) Develop morality in sequence and consistently, (3) Overcome ardent desires through reflection, (4) Lead students to develop their dominant capacity, and (5) Be good model.

'Mencius(孟子)' stresses to (1) Cultivate the good nature, (2) Train the will, (3) Consider the sequent development, and (4) Be a good model.

'Soon-Ja(荀子)' emphasizes to (1) Make good educational circumstances, (2) Indoctrinate students in courtesy(Ye), (3) Complete learning and knowing through acting, (4) Let students cumulate the moral behavior constantly, and (5) Restrain themselves their temper and desires.

'Doduk-kyeong(道德經)' emphasizes to (1) Actoin of non-action (2) Harmony of both extremities (3) Throwing away knowledge dividing subject from object (4) To intuit real world by emptying greeds (5) practice of teaching via no word.

Key Words : principle of moral teaching-learning, trying without trying, indoctrination of courtesy, temperance of emotion and desire, basic habit of li practice of filial piety, development of stage, integrative approach